

특별기고

날아라, 더 높이 대한민국 조선

신동식(주)한국해사기술

효자 산업이던 조선 산업이 패류아로 전락하여 발가벗겨진 채 피멍이 들도록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저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앰볼런스에 실려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의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세계 1위 조선국의 위업을 달성했던 우리 조선업계에 치욕이며 굴욕입니다.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성공에 도취하여 너무 오만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실컷 효자 노릇을 하고서도 정작 우군을 확보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처럼 행세했습니다. 사전에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에 대비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 조선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으며 조선인들의 정신 상태는 해이해 지고 용기와 도전정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조선인들은 품격과 자존심, 자부심, 명예, 애국심, 애사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급여 봉투의 두께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1970년~1980년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파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로서 성공했습니다. 80년 대 말, 한때는 우리 조선이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정량적^{定量的} 기준으로 신조선 수주량과 선박 건조량, 수주 잔량 등 3대 조선 지표에서 세계 1위를 견고하게 지켜내면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마켓 리더^{market leader}로서 긴 호황을 맞보았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세계무역이 연평균 15%씩 증가하고 물동량이 늘어남으로써 조선과 해운이 대박 날 때 우리 조선은 승승장구 했습니다.

그러나 추격전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는 쾌감과 성공의 달콤한 맛을 향유하는 사이에 추격 경제의 타성에 젖어, 뒷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방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소소한 잘못들이 쌓이고 쌓여 조선 산업의 전체 구조를 흔들고 순식간에 변화를 일으키는 티핑포인트 ^{tipping point}, 임계점^{critical point}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만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장기 해운 불황, 유가 하락,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임금 상승, 해양 플랜트의 무리한 저가 수주, 비양심적이고 탐욕적인 일부 경영자들의 부실 경영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히고설켜서 만들어낸 최악의 작품입니다. 외적 요인의 영향도 컸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 안에 있었으며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일부 빛나간 조선인들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꾸짖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 교집합^{交集}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위기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한 책임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조선 1세대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자신에게 회초리를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떤 산업이나 위기는 변수^{變數}가 아니라 상수^{常數}로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폭풍을 감지하고 대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효율적이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지요 자만이요 무책임입니다.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불황이라는 외부 요인이 상황을 악화시키도록 방치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번 불황은 참 고마운 불황입니다. 불황이 아니었다면 병균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황이 우리의 약점과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심각한 불황이 아니었다면 속으로 끓어 들어가고 있는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선 산업이 위기를 맞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 현대 조선 산업 역사가 50년에 이른 지금쯤엔 과연 현재의 시스템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나마 지금이라도 불황에 떠밀려 모든 사악한 부정부패와 실책이 백일하에 드러남으로써 정밀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잘못된 책임을 외적 요인으로 돌리는 외벌적^{外罰的} 사고^{思考}는 미래 우리 조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수반하는 내벌적^{內罰的} 사고^{思考}, 내지 비벌적^{非罰的} 사고^{思考}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일부 경영자들과 상황을 오판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되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는 맙시다. 오늘날의 상황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업^{*}입니다.

현재의 불황은 오일 쇼크나 리먼 브러더스 파산 직후의 불황에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중일 모두 조선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며 현재의 조선업 위기는 경기 순환적인 속성이 결부된, 구조적인 위기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다원적^{多元的}인 요인이 조선 산업 위기를 초래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언론과 여론은 단선적^{單線的}인 시각으로 국민 정서를 반^反 조선 산업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다시 한 번 조선 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저는 조선인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철학』을 바로 세웁시다

오늘날 우리는 철학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다분히 『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습니다. 『철학』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철인정치^{哲人政治} 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 시대를 관통하는 바른 생각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IT에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시켜 무미건조한 전자 제품에 예술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애플을 애플답게 한 것은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이라며 자신에게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를 할 기회를 준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그 식사와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학』을 갈구했는지 이 한마디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IT 혁명을 불러온 스티브 잡스는 오늘날의 첨단 IT 기술이 단순히 기술적인 노력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서 생겨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조선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에 IT를 접목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여기에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철학의 빈곤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고위 경영자들이 이처럼 충격적인 분식 회계 비리를 저지르고 몰염치한 모럴 헤저드의 시범을 보일 수 있었겠으며 일부 임직원들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무 개념 비리 시리즈를 태연자약하게 연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어찌 그렇게 파렴치한 행위와 방만한 경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위기를 경고해줄

자명고마저 찢어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로자들 또한 어쩌면 그렇게 회사가 기진맥진하여 탈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주먹으로 하늘을 찌르며 일터를 박차고 나와 성난 얼굴로 거리를 누빌 수 있었겠습니까?

『사회적 자본』을 확충합시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상호 신뢰와 협력, 소통의 네트워크입니다.

평소에는 경쟁 속에서 사익^{私益}을 추구하다가도 공동의 선을 위해서라면 사리사욕을 버릴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선업계는 이런 『사회적 자본』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는 서로 비슷한 물질,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두 경쟁자 중에서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고 있는 쪽이 경쟁에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되찾읍시다

우리 조선 산업은 수 천 년 동안 세계무대에서 번방으로 밀려나 있던 우리나라를 세계의 중심 국가로 끌어올리는 데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 1세대가 쏟아 부은 헌신적인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조선 1세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타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어도 조선 1세대의 헌신적인 전설 같은 스토리는 반드시 후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지금 이 시대의 정신에 닿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먼 후대에도 전해져야 할 우리 공동의 선이며 우리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조선 1세대는 농경 사회에서 태어나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날로그 세대지만 불굴의 도전 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황무지에서 조선 산업을 일구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으로만 여겨지던 조선 산업과 정보 기술을 접목시켜 조선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발전시킨 것은 건국 이래 세계화에 가장 앞서 있고 정보력이 뛰어난 후배 세대들이었습니다.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는 단합된 힘으로 유럽과 일본을 제치고 우리 조선 산업을 세계에 우뚝 세웠습니다.

조선 1세대 시절의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이 다시 살아한다면 지금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마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하시겠지요.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된다"고, "임자 해봤어?"라고 말하며 우리 조선인들을 독려하시겠지요.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신세대 조선인들은 영락없이 시대 착오적인 『꼰대』 같은 말이라고 비웃으며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개발 독재 시절의 진부한 구호를 되뇌느냐고 핀잔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방통행 식 리더십이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는 화두입니다. 젊은이들이 흥을 보더라도 저는 "하면 된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정보 통신 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확신합니다. 시대를 앞서 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 Nike가 "Just Do It" 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의 어느 저명인사는 "하면 된다"는 과거 군대 식 문화의 잔재이며 낡은 구시대의 전투적인 구호이고 "할 수 있다"는 젊은이의 언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언어의 유희일 뿐 두 말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이 말의 본질은 동적 에너지이며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21세 펜싱 선수 박상영이 모두들 패배를 예감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대 역전극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도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주문처럼 되뇌 결과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친 검객^{crazy fencer}』이라며 환호했습니다. "하면 된다" 속에는 지금 우리들에게 더 없이 필요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근면 DNA와 창의 DNA를 타고난 국민들입니다. 게다가 우리 조선 기술은 단연 세계 최고이며 수준 높은 고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우리가 마음만 다잡으면 세계 최고, 최대 조선국의 지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기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스스로를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며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국과 일본이라는 숙명적인 라이벌이 이웃해 있습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을 앞세운 중국의 해운 조선 굴기^{崛起}는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국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의 중화주의^{中華主義} 야욕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해운 조선 부문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시대착오적인 중화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국주의 역사는 2000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은 현대에 와서 조선 산업에도 그대로 적

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직면한 틈을 타서 우리 조선 업계의 고급 기술과 인재들을 빼내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보았던 그들의 오래된 사고^{思考}는 현대에 와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를 꺾고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만 못할 리 없습니다. 일본 역시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1위 조선 대국의 지위를 탈환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아시아를 모조리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들은 또한 2차 대전 패망의 잣대 위에서 경제 강국의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중일 조선 삼국지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해운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은 정부, 선사, 금융 기관 등 막강한 3각 포대의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싸우고 있고 일본조선 업계 또한 전통적인 일본 선주와 조선소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와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싸우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와 같은 심각한 노사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사 관계가 마치 견원지간 같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조선 업계는 여론과 언론으로부터도 맹폭을 당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악조건에 굴해 중국과 일본에 밀려 3위로 추락한다면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조선 강국의 지위를 탈환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추월 당하지 않으려면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빛나는 정신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새로운 에너지로 써야 합니다.

외적 환경 요인은 한국, 중국, 일본 조선업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한중일 3국의 경쟁에서 최후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누구도 단박 약^{miracle cure} 같은 처방전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부 환경이나 물리적인 physical 요소보다는 먼저 우리 내부의 정신적인^{mental} 요인이나 사고방식, 우리들의 의식구조^{mentality}에서 위기의 치유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소 중에서 고도의 기술 경쟁력과 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애국심, 자신감, 책임감 등 정신적인 요인입니다.

오늘날의 세태로 볼 때 젊은이들에게 애국심과 애사심, 도전 정신 등을 스펙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한중일 3국의 경쟁에서 세 나라 청년들의 강인한 정신 자세와 자신감이 조선 산업의 승패를 가를 것이 확실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 나라 간 경쟁의 승부처는 하드파워가 아니라 문화와 철학 등 소프트 파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라도 앞선 세대들의 희생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다시 한 번 도전의 칼날을 갈아야 합니다. 우리의 5천년 역사에는 조선 선구자들의 발자취와 대한민국 현대 조선 산업 50년사가 자랑스럽게 숨 쉬고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기^氣와 열정과 도전 정신이 후배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역사적 명제^{命題}를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지향점^{指向點}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호황에 대비합니다

첨단 산업 시대일수록 정신이 바로 서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호황기를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촉발된 3차산업혁명을 넘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과 3D 프린터 같은 물리적 공간^{physical space}을 통합하는 새로운 제조 기술인 동시에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명입니다.

디지털 설계도만 있으면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는 3차원 인쇄^{3D printing}가 제조 공정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부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해운산업의 장기 성장 시대가 끝났다고 단정합니다. 또한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운 물동량이 줄어들고 그 영향으로 옛날과 같은 조선 산업의 호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4년 동안 세계 무역이 연평균 2% 줄어든 데다 영국이 EU 탈퇴를 결의했고 미국까지도 차기 정권이 보호무역 색채를 띠 가능성이 많으며 중국의 소비 중심 성장 전략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침체된 세계 무역이 더욱 더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나름대로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약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4차산업혁명이 조선 산업의 전방 산업인 해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중후장대 산업인 조선 산업 같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우

리나라 제조 산업의 기반이 그런 주장에 매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조선 산업 기반은 절대로 허물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조선 산업의 호황은 반드시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도 2019년에는 다시 호황이 올 것입니다. 스마트십, 인공 지능 선박 등 각종 첨단 선박이 날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선박 건조 기술 역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어아 할 배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친환경 첨단 선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첨단 선박의 발주가 거의 없었던 것도 호황이 머지않아 다시 올 것을 기억하는 대목입니다.

다가올 호황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에 혼이 났다고 해서 해양 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미에 한 번 찔렸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장미를 보지 않겠다고 외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크루즈선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크루즈 건조 시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일본은 크루즈선 건조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그들이 크루즈선 건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크루즈선 건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조선업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중일 조선 삼국지에서 영욕을 가르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느냐 못 차리느냐에 따라 우리가 조선선도국가^{leading shipbuilding nation}로 남느냐 남지 못 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화합합니다

노사 간 불협화음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합니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선가를 올리고 선박의 품질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을 막기 위해 노사는 화합해야 합니다. 물리적 화합이 아니라 화학적 화합이 필요합니다. 노와 사가 화합하지 않으면 우리 조선은 필패^{必敗}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화합하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이제 노와 사는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자세와 작은 조짐을 보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줄 아는 건미지저^{見微知著}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조선인 여러분이 조선 1세대가 보여준 것과 똑 같은 수준의 양보와 타협, 헌신적인 자기희생 정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사명감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지켜야 할 시대정신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은 상생(相生)입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느 일방만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이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사라지고 『나』와 『저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희』라는 말을 너무나 남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저희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공통분모이며 그 속에는 너와 내가 공존하고 있고 서로의 동질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라는 말은 너와 나를 가르는 집단적 편 가르기이며 화자와 청자를 너, 나는 나로 가르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소통을 단절시키고 상생(相生)을 배제하는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경영진은 경영진, 노조는 노조, 나라는 나라, 나는 나일뿐인 사회 구조입니다. 조선 1세대에게는 『우리』가 우선이었고 나라가 우선이었습니다. 건전한 소통은 어느 사회에서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소통은 최소한의 『나의 양보』를 요구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이 현재의 진통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다시 『우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야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노와 사는 『우리』라는 공동의 테두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힘과 마음을 합친 『우리』만이 조선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아남기 위해 노사(勞使)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파업은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파업이 능사(能事)가 아닙니다. 파업은 공멸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인식을 노사가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경 투쟁 대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화합한다면 오늘의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가까운 수주전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노조와 회사가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미래 100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다시 써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합니다. 아름다운 미래 100년의 기억으로 다시 만나야 합니다.

비이장목(飛耳長目)

비이장목(飛耳長目)! 하늘을 더 높이 날고 귀를 열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멀리 앞을 내다봅시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리처드 바크(Richard Bach)의 우화 소설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Jonathan Livingston)처럼 높이 날시다. 더 높이. 더 높이.

귀와 눈을 닫지 마시다.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타조가 되지 마시다. 스스로 칸막이를 치고 문을 걸어 잠그지 마시다. 마음의 문과 눈을 활짝 엽시다.

후배 조선인들이여, 자유로운 영혼들이여! 우리에게서 월급 봉투 두께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땅의 조선 산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선조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해 뜨는 곳을 향해 마나면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정착한 소중한 땅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나라와 이 나라 조선 산업을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세상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어느 한 나라만이 독자청정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확고한 국가관의 바탕 위에서 경쟁을 펼쳐나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헬조선』이 뭘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하(卑下)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가만히 있는 것은 후진(後進)입니다. 가만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고를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벌여야 합니다. 젊음이답게 큰일을 내세워, 도발하세요, 도전하세요, 맘을 즐기세요, 생각의 틀을 바꾸세요, 엉뚱한 생각을 하세요, 별을 따올 생각을 하세요, 화성에 가서, 달나라에 가서 배를 지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융합하세요, 조선 공학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 공학만으로는 조선이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조선 공학과 우주 공학, 4차 혁명 산업, 심지어 생명공학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문사철로 상징되는 인문학과 조선공학을 접목시키고 여기에 궁극적으로 인간 공학을 융합시켜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곳은 우리 조선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역사에서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역사는 자부심만을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만이 역사가 아닙니다. 실패한 역사도 역사입니다. 영광에서도 실패에서도 우리는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역사는 반성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기 위해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재난으로 많은 인재들이 방류(放流)되고 있습니다. 인재를 비축해야 합니다. 인재를 존중하고 미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근로자들을 소중히 대접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조선 산업의 원동력입니다. 근로자들은 제조업의 기반입니다. 기반이 허물어지면 제조업은 끝납니다.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들이 제조업의 기반입니다. 기반이 허물어지면 제조업은 끝납니다.

똑 같은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회를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이번 위기는 기회비용을 치르는 계기라고 생각합시다. 위기의식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기회비용을 높여 보다 더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하는 기회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더 높이 날아오르라는 명령입니다. 조선 산업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천명(天命)입니다. 바람을 뚫고 과감하게 전진합시다. 전진하면서 양력(揚力)을 모으고 모아서 우주를 품을 듯 한 높은 기상으로 더 높이 날아오릅시다.

결기를 다져 위기를 극복합시다.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 조선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산 증인이며 살아 있는 역사』 라는 분에 넘치는 과찬을 들어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세계 어디를 가도 일등 조선국, 일등 조선인으로 가슴을 펴고 다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는 언제나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조선 산업의 반석을 세운 선각자들 대부분이 이미 작고하셨고 저 또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었는지를 더 늦기 전에 젊은 후배들에게 전하고 후배 세대들이 지금보다 더 찬란한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한 알

갱이의 지식과 노하우라도 남김없이 전해주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숙제의 절반이나마 마친 느낌입니다.

저는 지난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셨던 분들과 오늘 이 순간에도 자신을 불사르며 헌신하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이 앞으로 100년 후에 벌릴 찬란한 미래의 축제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미리 한 아름 안고 갈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벽찬 가슴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신 동 식

- 1932년생
- 1955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 (전)대통령 조대경제수석비서관 (전)대통령직속 해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현)(주)한국해사기술 회장
- 관심분야 : 경제
- 연 락 처 : ***-****-****
- E - mail : main@komac1.com

대한조선학회지 칼럼 필진 모집

대한조선학회지 칼럼 투고를 환영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원고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원고 접수 : editor@snak.or.kr